

例 64例中 肝肥大例 52例(81.2%) 및 正常大 12例(18.8%)를 보였으며 電擊性肝炎 에서는 被檢例 20例中 肝萎縮型 16例(80.9%) 그리고 肝肥大例 및 正常大가 各 2例(10.0%)를 보였다.

2) 急性 virus 肝炎의 肝走査上 脾像出現을 보되 被檢例 64例中 33例(51.6%)에서 그리고 電擊性肝炎에서 被檢例 20例中 14例(70.0%)에서 各各 輕度の 脾像出現을 볼 수 있었다.

3) 肝走査所見과 臨床像과의 相互關係를 보되 急性 virus 肝炎 64例中 觸知肝 45例(70.3%)인데 肝走査上 肝像肥大는 53例(83.9%)의 높은 頻度を 보였으며, 電擊性肝炎 20例中 觸知肝 4例(20.0%)인데 肝像肥大는 6例(30.0%)를 보였다. 急性 virus 肝炎 64例中 觸知脾는 6例(11.1%)인데 肝走査上 脾像出現은 33例(51.6%)의 높은 頻度を 보였고 電擊性肝炎 20例中 觸知肝 2例(10.0%)의 低率이었는데 肝走査上 脾像出現은 12例(60.6%)의 높은 頻度を 보였다.

4) 經時的 肝走査(serial scanning)를 實施한 結果 急性 virus 肝炎 에서는 入院後 5日~7日 사이에 肝肥大像의 減退를 보이고 電擊性肝炎에서는 入院後 7日~10日 사이에 肝萎縮像의 恢復을 보였다. 그리고 急性 virus 肝炎 및 電擊性 肝炎에서 認定된 脾像出現이 入院後 9日~10日 사이에 그 程度가 減退됨을 볼 수 있었다.

5) 急性 virus 肝炎 및 電擊性肝炎에 있어서 上述한 肝走査所見은 診斷意義를 示唆할뿐 아니라 治療 및 豫後判定에도 매우 有用함을 立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7. 간 주사상의 간문 결손상에 관한 분석고찰

연세의대 방사선과

김귀연 · 조은구 · 박창윤 · 최병숙

肝走査는 간장 자체가 형태학적으로 다양한 변형을 갖고 있고 또한 肝門, 담낭, 간정맥, 척추등 여러 장기들이 중첩되어 있을 뿐 아니라 scintiscan defect의 비특이성 때문에 아직도 병소의 객관적 진단에는 많은 장애가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많은 저자들은 간 주위 외연의 불규칙한 양상이나 정면상 혹은 측면상 중 어느 한쪽 상에서만 발견되는 하나의 결손상을 대했을 때 판독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었고 특히 그러한 결손상이 肝門 주위에서 나타났을 때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변형 이외에도 병변의 다양성 때문에 자칫 오진을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McAfee 등은 肝門 결손상의 원인으로 정상적인 변형 이외에도 전이된 암, 담도나 췌장의 악성 종양이 직접 침습한 경우, 원발성 간암, 그밖에 간장외의 병변으로 담낭 팽대에 의한 외인성 압력, 간하부농양 등을 지적한 바 있고 그 후 최근에 이르러 Koenigberg와 Beauchamp는 바터이스성 간염을, McClelland는 간경화증과 같은 간 실질 질환 까지도 이 부위에 결손상을 보여줄 수 있는 병변임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간문주위의 결손상을 해독하는데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1976년 1월 1일부터 1977년 3월 31일까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 동위원소실에서 실시된 간 주사상중 간문주위의 결손상을 암시했던 167例의 임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병리학 소견 및 수술에 의해 확진된 37例를 중심으로 그 연관성을 고찰 하였고, 결손상에 대한 병리진단은 되지 않았으나 임상소견 및 생검으로 원발성 암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전이로 추측되는 18例, ERCP 및 PTC로 담도 및 췌장의 병변을 제시했던 7例등 총 62例의 간 주사상을 비교 관찰 하고 주관성을 피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1) 병리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결손상을 원인별로 더 별하면 정상이 1例, 간 질환이 15例였고 담도계 및 췌장 기타가 21例로서 간 이외의 병변이 56.7%로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전이된 암으로 생각되는 22例중 원발성 부위로선 위장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대장, 폐, 직장의 순이었다.

3) 기대하지 않았던 담낭 병변을 보여준 6例에선 Rectilinear scan의 전면상 보다 측면상이 더 의의가 있었다.

4) 간장 기능 검사 소견과는 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18. 간 디스토마의 스캔소견

Radionuclide Diagnosis of Clonorchiasis

가톨릭醫大 방사선과

朴龍輝 · 金禎鎭 · 金春烈 · 朴漢圭

간 디스토마는 동남 아시아에 널리 분포되는 풍토병의 하나로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질환 중의 하나이다.

이 질환은 디스토마의 메타셀카리아(Metacercaria)가 제 2중간 숙주인 민물고기의 근육 등에 피낭된 상태로 존재하다가 종숙주인 사람에게 경구 감염되어 십이지장에서 트립신 등의 효소에 의해 탈낭되어 담도 말단부위에 이른다. 이곳에서 담도 상피의 분비물과 탈락세포 등을 먹고 자란다. 성충은 기계적 자극 및 독성물질 생성으로 담도벽, 소담도염 및 담도 주위 염을 일으키고, 따라서 간내 담관의 상피 조직의 비후, 주위조직의 섬유화 및 결체 조직의 증식을 초래한다.

이의 진단 방법으로는 변 검사에서 충란의 증명, 담즙에서 충란의 발견 및 피부 반응 검사 등이 있다. 또한 간디스토마 환자에서 종종 간 스캔을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종래 간 스캔 사진에서는 간 비대, 열독이 및 비장 증대와 같은 소견 만이 나타나 별로 의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금번 본 교실에서는 1967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수술 및 침 생검으로 진단이 확인된 12예의 순수 간디스토마 환자에게 실시한 간 스캔 사진을 분석, 검토한 결과 몇가지 특징있는 소견이 있음을 알고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종래 간 의성 폐쇄성 황달 환자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던 분지상 결손 음영(branching cold area)이 황달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간 디스토마 환자에게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위에서 말한 기계적 자극 및 독성 물질 생성에 의한 담도 염소, 담도 염 및 담도 주위 염에 기인한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황달이 없는 환자에서 간 스캔 사진에서 분지상 결손 음영을 보일 때는 간 디스토마를 의심해야 한다.

19. 各種肝疾患 및 其他 惡性腫瘍에서의 放射免疫測定法에 依한 血清 α -Fetoprotein 値에 關한 研究

A Study on α -FetoProtein Radioimmunoassay in Various Liver Diseases and Malignancies

서울의대 내과

李重根 · 尹容範 · 崔成在 · 金丁龍 · 高昌舜

正常에서는 胎兒血清 및 新生兒의 血清에서 數週間 나타났다가 消失되는 α -fetoprotein (AFP)이 1964年 Tatarinov 에 依해 原發性肝癌患者의 血清에서 持續的으로 檢出되는 것이 發見된 以來 AFP의 檢出이 原發

性肝癌의 診斷方法 및 豫後判定에 有用한 方法으로 널리 使用되고 있다.

放射免疫測定法에 依해 血清 AFP 値의 增加는 原發性肝癌 以外에 다른 惡性腫瘍, 妊娠 및 各種肝疾患에서도 證明되었으나 血清 AFP 値가 500 ng/ml 以上인 境遇는 간혹 胃腸管惡性腫瘍, 睪丸惡性腫瘍 및 전격성肝炎에서 一過性으로 나타나는 것外에는 거의 全部가 原發性肝癌에 依한 것으로 診斷的 價値는 매우 높아 現在 우리나라에서 널리 使用되는 二重免疫擴散法에 依한 AFP의 檢出은 그 診斷的 價値는 높지 評價되나 그 銳敏度에 問題가 있다.

즉 二重免疫擴散法에 依한 AFP의 檢出은 血清 AFP 値가 約 2000 ng/ml 以上이어야 可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해 放射免疫測定法은 그 측정한계가 5 ng/ml 으로 約 400倍 정도 예민하다.

또한 放射免疫測定法은 定量測定이 可能하여 理論的으로 原發性 肝癌例에서 反復的으로 施行하여 原發性肝癌에 對한 抗癌劑의 治療效果를 判定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活動性 慢性肝炎이나 肝硬變症의 經過를 長期間 觀察하는 동안 反復的으로 AFP를 測定하여 肝의 계속적인 腫大나 檢査室의 所見에 肝癌을 의심케 할 所見을 얻기 前에 AFP의 增加로서 이 疾患의 合併症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原發性肝癌을 早期에 診斷할 수 있다.

이에 演者들은 1976年 4月부터 1977年 4月까지 正常成人 80例 各種肝疾患患者 275例 및 다른 惡性腫瘍患者 45例를 對象으로 血清 AFP 値를 放射免疫測定法에 依하여 定量測定하고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1) 正常成人 80例에서의 血清 AFP 値範圍는 5~60 ng/ml 이었고 그 平均値는 13.3±12.9 ng/ml 이었다.
2) 原發性肝癌例 124例에서의 血清 AFP 値 範圍는 5~3200 ng 以上/ml 이었고 이中 血清 AFP 値가 500 ng/ml 以上인 例는 102例로서 全體의 82.3%였고 이때 二重免疫擴散法으로 陽性으로 나타난 境遇는 76例로全體의 61.3%였다. 血清 AFP 値가 500 ng 以下인 群과 以上인 群에서 肝腫大의 程度, 血清 bilirubin 値, alkaline phosphatase 및 SGOT 値는 兩群間에 有意한 差異가 없었다.

3) 慢性活動性肝炎 51例에서 血清 AFP 値 範圍는 5~400 ng/ml 였으며 그 平均値는 40.7 ng/ml 였으며, 臨牀的으로 電擊性肝炎의 經過를 밝은 2例에서 1800 ng/ml 및 2300 ng/ml 으로 增加하였다가 그후 追跡檢査에서 正常으로 減少하였다.